

The Logic Basic

2주차

1. 논제 이해
2. 독해

The Logic

-> 1주차에서 준비운동으로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면, 2주차에는 논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논제를 이해하고 제시문을 논제에 맞추어 독해하는 방법을 실었습니다. 먼저 1장 논제 이해에서는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순서에 의해 글을 써야하는지를 논제를 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쓰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독해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논술 제시문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수동적으로 읽어나가는 비문학 지문과는 달리 논술 제시문은 자신이 기준을 세워가며 능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2주차

1. 논제 이해

The Logic

논술은 출제자가 원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논제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아래의 논제를 풀어서 해석하라.

1.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서강대 2015 모의 논술)

[다]에는 두 입장이 나오는데, 이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두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나는 [가]의 관점과 연결되며, 하나는 [나]의 관점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는데, 이 쟁점은 위의 상반되는 두 관점이 대립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에 대하여 위 상반되는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하여 평가하거나(양자택일), 두 관점이 모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며 대안을 제시하며 평가(양비론 후 대안제시)하는 것이 좋다. (상반되는 두 주장이기 때문에 양시론은 옳지 않다.)

2.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취해 다른 관점의 현실의 사례를 들어 비판하라. (서강대 2014 논술 - 경영, 경제)

제시문 [가]~[마]를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요약하라고 했으니,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두 관점으로 나누고 각 제시문이 그 관점에 포함된다는 근거와 그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문들을 비교해야한다. (직접 비교가 아님).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취해 다른 현실의 사례를 들어 비판하라고 했으므로 그 관점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부정적 결과를 미칠지에 대해 창의적인 주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3.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중앙대 2015 모의 2번)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 뒤에 (사)의 '학습법'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두 제시문을 활용하여 한계와 효용을 밝히라고 했으므로 한 제시문은 효용과 관련되어 있고, 한 제시문은 한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먼저 한 제시문을 (사)의 '학습법'과 관련한 효용을 밝히는데 연관시키고, 다른 제시문은 한계와 연관시켜서 답안을 완성하라.

혼자서 해결하기

1.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중앙대 2015 모의 3번)

2.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와 (바)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고, (바)의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중앙대 2014 기출)

3.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고려대 2013 기출 인문A)

4.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고려대 2014 기출 인문A)

5. [가]와 [나]의 관점을 요약하고,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사례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라.

6. <가>~<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 <가>~<다>를 모두 고려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한양대 2015 모의 2차 인문)

7.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중앙대 2014 모의)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1.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중앙대 2015 모의 3번)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장과 근거를 적은 후 제시문 (아)의 주장과 근거를 밝히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시문 (아)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 (라)의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2.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와 (바)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고, (바)의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중앙대 2014 기출)

제시문 (라)의 상황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적으시오. 제시문 (바)의 상황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적으시오. 제시문 (마)의 관점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적으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와 (바)의 상황을 각각 평가하시오. 마지막으로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를 통해 평가하시오.

3.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고려대 2013 기출 인문A)

(1)의 (가) 및 (나)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쓰시오. (2)의 관점이 무엇인지 드러내시오. (2)의 관점에서 (1)의 (가) 및 (나)를 평가하시오. (3)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그리고 (2)의 관점과 다른 점을 드러내시오.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오.

4.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고려대 2014 기출 인문A)

②와 ③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①의 세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시오. 그리고 이 세 의견을 넣어서 ②와 ③을 설명하시오. 이 과정에서 ①의 세 의견의 장단점을 드러낸 후 ‘평등’에 관하여 어떤 의견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 [가]와 [나]의 관점을 요약하고,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사례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라.

제시문 [가] 및 [나]의 관점을 순서대로 요약하시오.
그리고 [다]의 사례를 요약하고, 앞에서 요약한 [가] 및 [나]의 관점으로 [다]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그리고 [라]의 사례를 요약하고, 앞에서 요약한 [가] 및 [나]의 관점으로 [라]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그리고 [마]의 사례를 요약하고, 앞에서 요약한 [가] 및 [나]의 관점으로 [마]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6. <가>~<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 <가>~<다>를 모두 고려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한양대 2015 모의 2차 인문)

<가>~<다>의 논지를 각각 나열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를 통해 드러내시오.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가>~<다>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도록 하시오.

7.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중앙대 2014 모의)

2문단으로 전체 글을 나누고, 1문단에서는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가), (나), (다), (라)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요약하면서 차이점을 드러내시오. 2문단에서는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가), (나), (다), (라)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요약하면서 차이점을 드러내시오.

2. 독해

The Logic

대부분 학교의 1번 논술 문제는 요약, 비교형 문제이다. 그러므로 ①**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②**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창조' 와 '파괴' 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800자 내외)
연세대 2009 정시 _ 창조와 파괴

제시문 (가)

그대들은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며, 더 커짐도 작아짐도 없이 청동처럼 단단한 고정된 크기의 힘이다. 이 힘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다. 전체로서는 그 크기가 불변하며, 지출도 손실도 없고 증가도 수입도 없는 가계(家計) 운영이며, 자신의 경계인 '무(無)'에 둘러싸여 있고, 흐릿해지거나 허비되어 없어지거나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으로서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공간 어디에도 '빈' 곳은 없다. 이 세계는 도처에 가득 차 있는 힘이고 동시에 힘들과 그 파동이 엮어내는 놀이이며, 하나이자 동시에 '여럿'이다. 여기서는 쌓이고 저기서는 줄어들며, 스스로 휘몰아쳐 오고 스스로 휘몰아쳐 나가는 힘들의 바다이며,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되돌아오며, 장구한 회귀(回歸)의 세월 속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여러 형태를 취한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으로 움직여 나아가고, 가장 고요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것을 넘어 가장 뜨겁게 이글거리고 가장 사나우며 자기 자신에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것이 되었다가, 그 다음엔 충만함으로부터 단순함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모순의 놀이로부터 다시 조화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궤도 위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영원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만도 권태도 피로도 알지 못하는 변화로서의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세계. 이러한 나의 디오니소스적 세계는 영원한 자기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의 세계이자 이중적 관능의 비밀스러운 세계이고 선과 악 저편의 세계이며, 순환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 목적도 갖지 않으며 원환(圓環)의 고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선한 의지 이외에는 어떤 의지도 없는 세계이다. 그대들은 이 세계의 이름을 알고 싶은가? 그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고 싶은가? 그대들,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자들, 가장 강하고 결코 놀라지 않는 자들, 한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 자신을 위해서도 한 줄기 빛을 원하는가

제시문 (나)

자본주의는 본질상 경제 변화의 한 형태이거나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진화적 특성은 단순히 경제적 삶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경제행위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며, 산업 변화는 종종 이러한 변화들(전쟁, 혁명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변화들이 산업 변화의 일차적 동인(動因)은 아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진화적 특성은 인구와 자본의 자동적 증가나 금융시스템의 예측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수송

수단,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 기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산업 조직의 구성 등으로부터 온다. [……중략……]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찍이 운작(輪作), 쟁기질, 거름주기과 같은 합리적 농법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곡물 창고, 철도 등과 연계된 오늘날의 기계화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체계의 역사는 잇단 혁명의 역사였다. 대장간 화덕에서 오늘날의 용광로에 이르는 철강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물레방아에서 현대적인 발전소에 이르는 전력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역마차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수송의 역사도 그러하다. 해외 또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철공소에서 U.S. Steel*로의 발전은 - 생물학의 용어를 쓴다면 - 모두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며, 이것은 쉴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 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이다.

* U.S. Steel: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

제시문 (다)

역사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일련의 위계적인 신분들 사이에 맺어진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영주, 가신(家臣), 장인, 견습공, 농노 등이 있었으며, 각 계급 내부에도 거의 예외없이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통해서 출현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역시 계급 대립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그리고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 단계에는 각각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 발전이 수반되었다. 원래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영주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던 신분에서 출발하여, 중세 꼬뮌과 같은 자위능력을 갖춘 자치공동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독립적인 도시공화국, (프랑스에서처럼) 군주의 과세대상인 '제3계급'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가내수공업 시기에는 반(半)봉건적 또는 절대주의적 군주제에서 귀족에 대한 대항 세력이자 군주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근대 산업 및 세계시장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부르주아 계급은 근대 대의제 국가를 통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쟁취했다. 근대 국가의 행정부란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다름 아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상전(上典)에 묶어놓았던 봉건적 속박을 가차 없이 찢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별거벗은 이해관계 내지는 '금전적 수수관계'만 남겨 놓았다. 종교적 열정과 고귀한 열망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기중심적인 차가운 이해타산으로 바꿔놓았다. 인간적인 가치를 교환가치로, 또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비인간적인 자유로 대체했다.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배일에 가려있던 착취를 적나라하고 몰염치하며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착취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중략……]

관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왔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각 시기의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계급의 관념이었다. 관념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고,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산업의 발전은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리 상태를 결사(結社)를 통한 혁명적 단결로 바꿔놓는다. 따라서 근대 산업의 발달은 부르주아 계급의 생산과 착취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킨다. 결국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활동을 통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모두 불가피하다. [……중략……]

정치권력이란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에 불과하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조건들을 폭력적으로 지양(止揚)한다면, 이는 곧 계급 대립의 조건들 및 계급 일반, 더 나아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지위까지 지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계급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① **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국어 비문학지문을 읽을 때처럼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파괴’라는 논제에 맞춰 제시문을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즉, 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즉, 개념화가 필요하다. 학생에 따라 여러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는 주제, 대상, 목적, 개념으로 기준을 잡아보았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각 제시문을 파악해도 되지만, 후에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제시문 (가)	
※창조와 파괴를 하는 주체 는 무엇인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는 ‘힘’이다.
※창조와 파괴의 대상 은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것, 가장 복잡한 것, 가장 고요한 것, 가장 사나운 것 등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가 그 대상이 된다.
※창조와 파괴의 목적 은 무엇인가?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에 의해 순환적으로 당연히 그러한 창조와 파괴가 일어날 뿐이다. 위 제시문이 그리는 세계는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는 순환적이고 폐쇄적인 세계이다.
※창조와 파괴는 대립되는 개념 인가?	창조는 파괴를 낳고, 파괴는 창조를 낳는다. 상호보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창조와 파괴를 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의 구성원들이다.

※창조와 파괴의 **대상**은 무엇인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수송 수단,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 기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산업 조직의 구성 등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요소들이다.

※창조와 파괴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해, 즉 이윤창출을 위해 계속 기존의 자본주의체제를 뒷받침해왔던 원리들을 깨부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창조와 파괴는 대립되는 **개념**인가?

즉, 작게는 새로운 상품, 크게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부단히 등장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는 일견 모순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제시문 (가)처럼 창조는 파괴를 낳고, 파괴는 창조를 낳는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다)

※창조와 파괴를 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계급투쟁을 통해 내부체제를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발전과정을 만들어나가는 인류이다.

※창조와 파괴의 **대상**은 무엇인가?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계급이라는 관념이다.

※창조와 파괴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급투쟁으로 이룩된 부르주아사회도 새로운 계급을 생산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낡은 체제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함이다.

※창조와 파괴는 대립되는 **개념**인가?

위와 마찬가지로이다. 계급투쟁으로 인한 내부체제의 파괴는 새로운 정치적 체제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창조와 파괴는 공산주의사회가 정착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시문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②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위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도표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다.
(색의 차이에 주목)

	(가)	(나)	(다)
주체	고정불변의 힘	자본주의 구성원	역사의 흐름
대상	세계의 원리	생산수단(물질)	계급(관념)
목적	없음	이익창출(진보)	공산주의(진보)
개념	상호보완	상호보완	상호보완

※ 예시 답안

<p>서론</p> <p>역설적이게도 파괴는 창조를 낳고 창조는 파괴를 낳는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창조와 파괴가 이처럼 상호보완적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그러한 창조와 파괴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제시문 (나)와 (다)는 진보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차이가 있다.</p> <p>공통점으로 대주제를 설정, 세 개의 제시문을 한 번에 비교하면 너무 복잡해지므로 ‘진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나), (다)와 그렇지 않은 (가)를 분리하여 논의를 이어감</p>
<p>본론 - 1</p> <p>제시문 (가)는 창조와 파괴가 고정 불변한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본다. 이러한 창조와 파괴는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에 의해 순환적으로 당연히 그러한 창조와 파괴가 일어날 뿐이다. 이 세계는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는 순환적이고 폐쇄적인 세계이다.</p> <p>제시문 (가)의 창조와 파괴가 무목적성을 지닌다는 주장에 대한 논증과 추가적인 설명</p>
<p>본론 - 2</p> <p>제시문 (나)는 창조와 파괴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진보를 이룬다고 보는 반면에 제시문 (다)는 계급을 철폐하고 만인이 평등한 역사적 진보를 이룬다고 본다.</p> <p>제시문 (나), (다)가 창조와 파괴가 ‘진보’를 이끌어낸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공통점에 대한 근거)</p>
<p>본론 -3</p> <p>그러나 제시문 (나)는 진보를 물질적 발달로 이해하는 반면에 제시문 (다)는 관념의 발달로 이해한다는 차이가 있다.</p> <p>제시문 (나), (다)의 차이를 드러내며 논의를 심화</p>
<p>본론 -4</p> <p>제시문 (나)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 기존의 생산수단 및 체제를 파괴하며 새로운 생산수단을 창조해낸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진보라고 보는데, 이는 물질이 발달을 진보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

제시문 (다)는 계급투쟁의 결과 봉건적 사회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으나, 부르주아 계급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계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이를 파괴하여 만인이 평등한 정치체제를 구현해야한다고 하므로 관념의 발전을 진보라 보고 있다.

제시문 (나), (다)가 진보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결론 - 생략

[연세대 채점 기준]

지나치게 긴 도입부와 결론 : 도입부인 서론을 너무 길게 쓰거나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은** 좋은 답안이 아님. 서론 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논지파악의 문항에서는 서론과 결론 부분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음. 기본적으로 **본론 위주의 답안 작성**이 바람직함.

혼자서 해결하기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연세대 2009 기출

제시문 (가)

참인 것과 좋은 것은 본성적으로 더 증명하기 쉽고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몸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반해 말을 사용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연설을 사용하는 것이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연설의 능력을 정의롭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은 커다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일은 도덕적인 덕 이외의 모든 유용한 것에 공통된 점이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것들은 해악의 위험성도 가장 큰 법이다. 강한 체력, 건강, 부, 용병술 등이 그렇다. 이런 것들은 정의롭게 사용하면 유익함이 더없이 크지만 정의롭지 않게 사용하면 더없이 큰 해악을 낳는다.

.....[중략].....

수사학이란 주제가 무엇이든 그에 유효한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이다. 이것은 다른 학문분야에는 없는 기능이다. 다른 모든 학문 분야는 그 나름의 고유한 주제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의학은 건강과 질병에 대해, 기하학은 도형의 속성들에 대해, 수학은 수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수사학은 우리에게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그것을 설득할 수단을 찾는 능력이다. 수사학은 한계를 갖는 특정한 주제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연설에 사용하는 설득의 수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연설가의 성품이다. 둘째는 청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연설 자체가 제공하는 논거나 논거임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설득 수단은 연설가의 성품에서 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믿고 더 쉽게 믿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연설가의 훌륭한 성품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사람들이 연설에 의해 설득되는 두 번째 경우는 연설이 청중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고무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픈지 기쁜지 또는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따라 어떤 것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적합하게 사용하여 진리나 진리임직한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면, 이때 설득은 연설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시문 (나)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오늘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느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서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잃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전국 애국남녀의 합심 합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友邦)들이 축하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애국남녀가 단단한 애국성심(誠心)으로 각각의 책임을 다한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국회 성립 또한 완전무결한 민주제도로 조직되어 두 세 개 정당이 그 안에 대표가 되고 무소속과 좌익 색채로 지목받는 대의원이 또한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왕의 경험으로 추측하면 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思想) 충돌로 분쟁 분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爭論)이 있다간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民意)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一心)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만히 해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니 국회의원 일동과 전문위원 여러분의 애국성심을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민주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 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먼저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과거 40년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불의(不義)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邪)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임금이 소인(小人)을 가까이 하고 현인(賢人)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시문 (다)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어, 명의 연호를 버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땋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이 호위 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랑캐라고 부른다는데, 내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옷을 걸치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너의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임금이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너의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하며,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절

이 반듯해서 옥같이 맑다 하니 가까이 두려 한다. 내 어여삐 쓰다듬고 가르쳐서 너희의 충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겠다. 대저 천자의 법도는 무위(武威)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 먼지와 눈보라는 내 본래 즐기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네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을 어찌 상서롭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 동쪽의 강들이 얼기를 기다려서 군마를 이끌고 건너가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말라. 너의 좁은 골짜기의 아둔함을 나는 멀리서 근심한다.……

<답안을 작성하시오>

① 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개념화)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②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	(가)	(나)	(다)

※ 답안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① 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개념화)

제시문 (가)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설자의 성품, 청중의 감정, 진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방법이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인가?

진리를 통한 논증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설득이므로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동의**에 의한 것인가?

그렇다. 진리를 통해 상대방이 그에 완전한 동의를 표했을 때만 설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수결로써 여러 다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방법이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의사결정방법인 다수결을 통해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이 담보된다. 즉,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한 동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다수가 소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

권위와 위엄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방법이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인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통해 협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해결 방식이라 볼 수 있다.

②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가)	(나)	(다)
방법	설득	다수결에 의한 투표	협박
폭력성	X	X	O
자발성	O	O	X
완전성	O	X	

※ 답안

서론
인간사회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협박을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와 (나)는 상대방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갈등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론 -1
제시문 (다)의 칸은 대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며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며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본론 -2
제시문 (가)는 언어의 힘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민주사회의 운영원리인 다수결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려고 한다.
본론 -3
하지만 (가)의 설득은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데 반해 (나)의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론 -4
(가)의 설득은 화자의 인품이나 상대방의 감정 또는 진리를 통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완전한 동의에 이르는 방법이다. 하지만 설득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차선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반해 (나)는 다수가 선택한 해결방법을 소수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소수에게서는 완전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와는 달리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수결로써 확실히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주차 종합 연습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균관대 2015 모의)

<제시문 1>

새로운 것에 폭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국경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없는 국경 없는 세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할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최근의 기술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자유 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동안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상호주의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 내게는 이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이 매우 느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둘째,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조장한다. 그것은 관세가 관세부와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관세를 인하하면 그것은 마치 좋은 무언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라는 형태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데 다른 나라들의 관세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적 이익은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는다. 영국이 19세기에 곡물법을 폐지하였을 때 그랬듯이,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적 힘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3>

성공을 향한 중국인들의 노력의 결과 (물리적 거리와 재능의 총체적 관계가 변했듯이) ‘난소 복권(ovarian lottery)’이 바뀌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포킵시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몸바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포킵시를 선택했을 것이다. 평범한 재능이지만 거기서는 운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사업을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지금이라면 포킵시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걸 택하겠다.”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광장으로 바뀌고 30억 인구가 이 모든 새로운 협력의 수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얻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활동의 범위가 전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들었으므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서구 중심적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하거나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위기>의 저자인 요스트 스미르스는 자유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처한 위기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나 예술을 경제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그럴 경우 문화적 획일화가 발생하여 지역 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과 배급, 마케팅, 소비 방식 전반이 분산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독점 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시문 5>

당신이 소비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접 옷을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수리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급자족 시대에 농부들이 실제로 살았던 삶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마이클 조던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는데 온통 시간을 다 바쳤다면 어땠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주(州) 혹은 개인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다. 애덤 스미스도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데 돈이 더 드는 물건이라면 집에서 만들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분별 있는 가장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의 산출물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편이 현명하다.

1. 논제이해

-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세계화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나오므로 두 문단으로 나눈다. (편의상 A와 B그룹으로 명명) 첫 번째 문단에서는 A가 세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두괄식으로 밝혀주고 이 그룹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써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B가 세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두괄식으로 밝혀주고 이 그룹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써준다.

2. 독해

2-1. 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독해의 기준은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

2-2.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X	제시문1	제시문2	제시문3	제시문4	제시문5

※ 답안

1 문단

--

2 문단

--

2주차 종합 연습 - 예시 답안

1. 논제이해

-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세계화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나오므로 두 문단으로 나눈다. (편의상 A와 B그룹으로 명명) 첫 번째 문단에서는 A가 세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두괄식으로 밝혀주고 이 그룹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써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B가 세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두괄식으로 밝혀주고 이 그룹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써준다.

2. 독해

2-1. 논제에 맞춰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독해의 기준은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 1

※ 세계화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제시문보다 앞선 글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를 기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화자는 세계화는 기술 혁명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각 국가 정부의 정책 결과라고 보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기에 제시문에 의할 때 세계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2

※ 세계화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화자는 관세인하에 대한 상호주의적 협상태도가 자유무역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관세는 자국과 타국에 모두 해로운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가능케하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제시문 3

※ 세계화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과거에는 윤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선진국에 태어나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므로 세계화가 평등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4

※ 세계화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계화는 이제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가 다양한 문화가 꽃피우는 것을 돕기보다는 서구 중심의 획일적 문화를 세계에 자리 잡게 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고 지역문화의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 5

※ 세계화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비교우위이론에 따라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자유교역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X	제시문1	제시문2	제시문3	제시문4	제시문5
긍정	X	O	O	X	O

※ **답안**

1 문단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먼저 제시문 1은 세계화는 통신 및 교통 발달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의 이익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하며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제시문 4는 세계화는 열강들의 침략적 제국주의가 문화 제국주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계속된 세계화 추세는 획일적 문화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하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2 문단
이에 반해 제시문 2, 제시문 3, 그리고 제시문 5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제시문 2는 관세인하 대한 상호주의적 협상태도가 무관세 자유무역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3은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세계화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세계에 뽐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므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5는 폐쇄적으로 내수 경제에만 목매는 것보다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을 세계시장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